

김영록 지사, 거소투표 등 투표참여 독려 특별지시

10일 ‘유권자의 날’ 공명선거 대책회의…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제14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독려 대책회의를 열어 이날 마감되는 거소투표 신청 안내 등 현장 중심의 투표 참여 독려를 특별히 강조했다.

전남도 실국장,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영록 지사는 “모든 유권자가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이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거소·선상·사전·본투표 등을 적극 홍보하고, 투표소 설치와 관리, 투·개표 종사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표소에 가

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10일 오후 6시까지 읍면동에 거소투표를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독려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만큼, 도와 시군 공무원이 선거 관여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공직자강화책에도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또 “투표는 합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다. 도민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더욱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염선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경찰실에서 실·국장 및 영상으로 연결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독려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성지인 사직동 통기타 거리를 X세대와 MZ세대를 아우르는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 남구는 9일 “최근 광주에서 실시한 지역특화 예비 우수상권 발굴·육성 공모에 사직동 통기타 거리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시비와 구비 등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 음악 중심의 골목상권 성공모델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통기타 거리 상인들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협약체제를 구성한 뒤 X세대와 MZ세대 음악인 간 상생 발전을 통한 골목상권 활

광주 남구, 통기타 거리 ‘X·MZ세대 상권’ 육성 야외 버스킹 장 조성·청년 점포 유치 등

성화와 마을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직동 통기타 거리 특화 상권 육성 사업은 올해 연말 오픈을 목표로 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시간우체국 건립과 다양한 이야기를 선보이는 살롱 등 사직 프로젝트와 맞물려 사직동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남구는 통기타 거리에 X세대와 MZ세대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야외 버스

킹 공연장을 만들고, 평일과 주말에도 버스킹을 상시로 이어갈 계획이다.

통기타 거리 음악협회 소속 가수들과 통기타 그룹, 아마추어 동호회 등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비어 있는 상가 2곳을 청년 점포로 유치해 연간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사직동 통기타 거리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광

주 시민을 비롯해 광주를 찾는 타지인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기타 거리 취급 메뉴의 가격 인하와 고객 유입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마련하고, 야간 경관조명 개선을 비롯해 통기타 거리 디지털 마케팅, 스탬프 투어 앱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통기타 거리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음악인이 상생하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사직동 일대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서구, 전국 최초 모바일 기반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제공 (주)웰로와 업무협약 체결... 기부 접근성·참여율 획기적 제고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인 (주)웰로(대표 김유리안나)와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모바일 기반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협약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웰로는 약 40만명의 회원들을 보유한 AI 기반 맞춤형 공공정책 추천 플랫폼기업으로, 기부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모바일 서비스를 오는 6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부자 편의성 증대 및 참여율 향상을 위한 지원 서비스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지역 특산

품 및 다양한 기부 혜택 홍보 ▲서구의 지역성과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 영상 제작 등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서구와 (주)웰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미래를 함께 여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구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구는 모금된 기부금을 활용해 ‘천원국시’, ‘천원택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과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

광주농업기술센터 “보고 느끼며 농촌체험 하자” 허브 족욕·꽃바구니 만들기 등 12일부터 선착순 160명 모집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농촌융복합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농촌체험 참여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6월 2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하며, 지역 내 체험농장인 ▲북구 분토농업주말농장 ▲광산구 리더아장미농원 ▲남구 힐링가든류 ▲광산구 소울팜에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허브 족욕, 친환경 허브화분 심기, 꽃바구니 만들기, 다육식물 가드닝, 구움찰떡 탐구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실습형 체험 중심으로 이뤄진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광주시 ‘바로예약 누리집’(www.gwangju.go.kr/reserve/main.do)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이며,



회차당 20명씩 총 16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광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융복합지원팀(062-613-5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일 기자



동구 여성 창업 플랫폼, ‘동구만세 플리마켓’ 개장

10월까지 금남로·예술의 거리 등서 5차례 열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동구만세(동구여성이 만드는 세상) 플리마켓’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처음 시작한 동구만세 플리마켓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창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여성들이 판매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판매자들 간의 창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현재까지 플리마켓에 참여한 3개소가 개인 창업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구만세 플리마켓은 지난 4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예술의 거리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열린다. 여성친화마을 공동체와 동구 여성 주민들로 이뤄진 창업준비팀 등이 참여해 각종 수공예

품과 먹거리, 체험 등을 준비해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플리마켓에 참여한 20팀을 대상으로 사전모임 격인 ‘동구 셀럽 데이’를 열어 플리마켓 운영에 필요한 실습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참여자 간 협력 지원과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를 2회 더 실시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남녀노소 모두의 삶이 윤택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지역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북구,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확대 운영

지난 3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총 10대 기부 신청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10대를 기부받아 추가 설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라벨과 이물질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 또는 캔을 투입하면 적정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 뒤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친환경 스마트 장치이다.

특히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 유도 및 자원 순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말에 수퍼빈(주)을 포함한 두 기업에서 총 2억 7천여만 원 상당 무인회수기 10대(단일형 1대, 복합형 9대)의 기부 의사를 전해오에 따라 지난달 29일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 물품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북구의 확인 결과 10대 중 9대는 중고 물품이나 기부 시 내부 부품 전체 교체 조건, 짧은 사용 기간, 예산 절감 효과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수요조사를 거친 뒤 오는 6월 중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북구 내 무인회수기는 총 19대가 운영될 전망이다.

북구는 이번 추가 설치로 주민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분리배출 생활화와 자원 순환 인식개선을 위해 가까이 무인회수기를 기부해주신 기업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분리배출 편의 제공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